

불교, 호국을 말하다

제23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호국법회가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에서 봉행됐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 스님, 산전사 주지)와 은평구청불심회(회장 김은혜)는 6월 7일 호국사찰 서울 진관사에서 제23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장 성운 스님을 비롯한 사원연합회 주지 스님 및 신도, 김우영 은평구청장, 이현찬 은평구의 회 의장, 이재오 한나라당 특임장관, 김기경 서울시의회 의원, 보훈가족, 은평구청 불심회 및 불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호국법회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뜻을 기리는 행사로 은평불교사원연합회와 은평구에서 23년간 진행해 왔다. 사원연합회는 법회에서 선열의 후손을 위로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보훈단체 및 가족, 모범공무원 모범자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48명에게 각각 장학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불교의 호국정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호국영령에 대한 추도 정신은 한 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이어가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된 제23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에는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다”고 말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불교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백성의 삶이 피폐해질 때마다 민족과 국가를 지키며 민족정신의 지주역할을 했다”며 “자타불이 정신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나눔을 생활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찬 은평구의 회 의장은 “지도층 인사의 일탈행위로 맘 흘려 번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으며 각종 국책사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갈등, 대북문제 의 쟁인 매듭을 풀어가는 방법을 두고 벌어진 국론 분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불심과 국민의 혼연일체 된 힘으로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해 가지”고 당부했다.

기원대법회 참가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신적 계도 역할 수행, 법과 질서 존중, 복지·교육 발전에 힘을 쏟을 것을 발원했다.

이상연 기자

“당연히 해야 할 일...”

송천사 주지 혜장 스님

은평불교사원연합회와 은평구청불심회가 마련한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올해 전달한 장학금은 2400만원, 그 중 1000만원을 보시한 혜장 스님의 자비나눔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혜장 스님(70)은 1994년 성운 스님과 인연을 맺은 후 매년 사정이 되는 대로 100만원, 200만원씩 전달해 왔다.

“큰 법당으로 절을 반듯하게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범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활력을 불어 넣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평소에도 방송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 바로 전화를 눌러 기부를 한다. 이렇게 하루에도 최소 1~2만 원은 나가고, 신도나 지인의 자녀가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하면 등록금도 아낌없이 후원하고 옷이라도 사서 보낸다. 스님은 “내 욕심 차리면 아무것도 못한다. 늘 이웃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든 사정이 되는대로 정성을 다하면 천지가 돕게 돼 있다”며 “이번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에 특별히 알려지길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은평불교사원연합회와 은평구청불심회가 마련한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올해 전달한 장학금을 2400만원, 그 중 1000만원을 보시한 혜장 스님(70)은 1994년 성운 스님과 인연을 맺은 후 매년 사정이 되는 대로 100만원, 200만원씩 전달해 왔다.

이상연 기자

현충일 행사서 찬송가 연주

국방부 “종교적 이해와는 무관” 해명

현충일 행사에서 군악대가 개신교 찬송가를 연주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월 6일 서울현충원에서 제56회 현충일 추념식의 1부 행사로 거행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은 지난해 10월 강원 양구에서 발굴된 이천후 이등중사의 유해를 이미 서울현충원에 안장된 친형 이만우 하사의 묘 옆에 모시는 행사였다.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 한민구 합참의장,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국방부 군악대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을 연주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은 8일 ‘국방부는 호국영령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국

가 공식 행사에 특정종교의 찬송가가 국방부 군악대에 의해 반복 연주됐다는 사실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연은 “이는 국가 공식행사조차 장로 대통령의 코드에 맞추려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호국영령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종교편향적 행위”라며 “국가 공식기념행사에서의 특정종교음악 연주 금지 >대통령 참석행사에서의 위헌적 행위 근절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정책홍보담당관실은 7일 트위터를 통해 “종교적 이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정식 출범

20여 단체 참여, 공동대표 선출 등 조직 정비 예정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정식으로 출범하고 불교계 발전과 세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6월 3일 밝혔다.

이들은 문수 스님 소신공양 1주기 생명평화대화마당 마지막 강연이 마무리된 뒤 청중들에게 출범을 알렸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생명평화공동체 등 다방면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13~15일까지 조계사 갤러리 ‘나무’에서는 해에너지의 위협성을 알리는 전시회를 연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에는 참여불교 재가연대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새 주소 변경에 불교계 항의 봇물

개운사 이어 화계사도 반발... “‘화계사길’ 대신 ‘덕릉로’ 웬말!”

7월 29일 새 주소가 도입되면서 새 주소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민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개운사에 이어 화계사 주지 선암 스님 역시 6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 주소 변경으로 ‘화계사길’이 ‘덕릉로’로 변경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서울 성북구 화계사에 이어 도봉구, 노원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에 이르는 ‘화계사길’은 폐지되고, ‘덕릉로’로 신설될 전망이다. 선암 스님은 “이미 60여 년 동안 사용한 지명을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덕릉로’로 바꾸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30년 동안 이 지역을 살았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계사길’이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측은 ‘화계사길’의 ‘덕릉로’ 변경 이유에 대해 “인근에 덕흥대원군 묘가 위치하기 때문에 ‘덕릉로’로 도로명이 붙여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선암 스님은 “수유리 일대에서 30년을 살아왔지만, 덕릉이 어디 있는지 누구의 능인지조차 들어 보

지도 못했다”며 “서울 시민이 다 알고 있는 ‘화계사길’을 아무도 모르는 ‘덕릉로’로 굳이 변경한 이유에 대해 전혀 납득을 할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스님은 “새 주소 명칭은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지명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을 홍보하며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 자긍심과 애착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종교적인 이유로 ‘화계사로’를 폐지하고 ‘덕릉로’로 바꿨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사를 표했다.

덕릉은 경기도 별내면 흥곡사 근처에 위치한 조선왕조 선조 임금의 부친인 덕흥대원군의 묘이다. 스님은 ‘덕릉’에 대해 “당시 신하들의 반대로 능으로 봉해진 바도 없고, 선조임금 부친의 묘로서 마을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덕릉으로 불리게 된 것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새로 제정된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의하면 도로명의 부여·변경 기준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과 지역주민

의 의견 등을 종합해 고려하도록 명시돼 있다. 선암 스님은 이 같은 내용으로 미뤄 봤을 때, ‘덕릉로’ ‘덕릉로길’보다 ‘화계로’ ‘화계로길’로 명칭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선암 스님은 “화계사 사적비문에 의하면 화계사 창건 당시, 화계사(華溪寺)는 화계동(華溪洞), 즉 꽃골에서 연유했다. 꽃골은 빨래골, 뽕골처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선암 스님은 “‘화계’라는 이름은 이미 화계중학교, 화계초등학교, 화계유치원, 화계교회, 화계맨션 등 특정종교를 넘어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우리의 역사와 문화 숨결이다”라고 밝히며 “행정안전부는 새 주소 명칭 부여에 신중하고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스님은 “현재 ‘개운사길’이 ‘인촌길’로 변경됐다든가 다시 환원된 것에 희망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화계로’라는 명칭이 도로명 변경 취지에 들어맞는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동국대에 이제사 채식 식당 개점

채식문화 확산 위해 2주간 시범운영... 9월 정식 오픈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6월 7일 채식 식단만 제공하는 ‘채식당’의 문을 열었다.

동국대 상록원에 입주한 뷔페형식의 채식당은 각종 쌀과 나물, 두부, 잡곡밥, 샐러드 등의 식단으로 5000원~7000원대의 점심 식단을

제공하며, 2주간 시범운영을 한 뒤 점 검·보안 절차를 거쳐 9월 초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

동국대의 채식당 운영은 건학이념인 불교의 불살생(不殺生, 산 것을 죽이지 않는다) 정신에서 비롯됐다.

채식당 위탁업체인 아워홈 동국대 지점장 이상민 씨는 “불교 종립대학의 특성상 스님들이나 채식주의자의 수요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서울대만 종교적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위한 채식 식당을 운영했다. 동국대의 경우 채식주의자 연구원이 총장에게 채식식당을 만들어달라는 편지를 쓰는 등 요구가 많아져 대학 측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식당은 100% 식물성 재료만을 사용해 젓갈이나 멸치육수도 쓰지 않는다.

개점 첫날 식단을 맛본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인경 스님은 “종립대학인데도 육식을 비롯해 일반인 입맛 위주의 음식들이 많아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채식식당이 알려지면 발걸음이 잦아 질 것 같다”고 반겼다. (02)6713-5140

노덕현 기자

국내 최초, 불교계 최초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출간!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품위 있는 선물!

Concise Buddhism Dictionary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 명확하고 풍부하다.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의 특징

-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불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단어 4,950여 개 항목을 엄선했다. 불교와 관련된 교리·사상·역사·인물·문화·문헌 등 불교도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항목 중심으로 뽑았다.
- 단어의 개념 설명이 매우 간결·명확·풍부하다.**
-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 사이즈가 작은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고급 사전 용지를 사용해 두께가 3.2cm로 가법다.
-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한 단어만 찾아도 관련 지식이 쏟아진다. 부처님 생애는 물론, 인도·중국·한국·티베트·일본불교의 역사와 초기·원시·부파·대승불교 그리고 밀교의 교리와 역사·사상·철학·문화가 다 서술되어 있다. 특히 반야,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대승불교, 선사상, 무아, 열반 등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성립과 기원, 변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서술되어 있다. 이 한 권만 있으면 중요한 불교용어는 물론이고, 불교교리와 사상,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까지 모두 해결된다.
-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승화된다.**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발전합니다. 법문이나 강의를 듣고 나서 질문을 하고 싶지만, 막상 “그것도 모르냐”고 할까봐 질문하지도 못합니다. 또 타인을 의식해서 질문하지 못하는 때도 많습다. “집에 가서 찾아와줘”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오기도 전에 잊어버리기 일쑤!

불자 모두 선물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김승동 편자(부산대학교 명예교수)
117x178mm / 고급 사전 용지 사용 / 1,216쪽
4,950여 개 항목 수록 / 고급 양장 / 특수 제본 / 값 38,000원

구입 문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

-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 법보시는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니다.
- 각 지역별 판매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민족사